

학생들도 모르는 '학업중단 숙려제'

광주 청소년 83% 불참...35% "학교에서 안내 못받아" 고1때 학업중단 최다...대안학교 진학·검정고시 준비 53% 자퇴후 또래와 놀거나 아르바이트로 소일...대책마련 시급

광주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10명 중 8명이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중 30% 이상은 학교의 안내가 없어 관련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10명 중 3명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떠났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를 떠난 학생도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 9~24세 사이의 학업중단 청소년 232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82.8%에 달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학교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하고 싶지 않아서'(20.7%), '계획이 있어서'(17.1%),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해서'(16.6%)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유형별로는 대안학교 진학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업형이 5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관찰 및 가출로 인한 비행형(15.5%),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니트형(12.9%), 혼합형(10.3%), 직업형(8.2%) 순으로 조사됐다.

학업을 중단한 시기는 고1(35.6%)과 중

1(16.3%) 때 집중돼 있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과 대인관계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초등학교(8.6%)를 포함해 중3 이하 때 학교를 떠나는 학생 비율은 49.8%에 달했다.

학교를 그만 둔 요인(중복응답)으로는 '학교 부적응' 34.3%, '엄격한 학교 제도 및 규칙과의 갈등' 21.6%, '학업진도' 20.6%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뒤 생활 형태(중복응답)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놀았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이 44.2%나 됐으며, 이어 검정고시 준비 38.2%, 아르바이트 29.8% 순이었다. 또 '게임 또는 TV시청'이라고 답한 학생도 28.6%에 달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4년간 학업을 중단했던 청소년

중 50%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아 후회된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윤정원(17)군은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수 조선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학교를 그만 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비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학업중단 시기와 경과 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에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1729명이다.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3일 오후 2시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연구 최종 보고회'를 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4 해질 17:23 | 월출 15:37 월몰 03:44

흐린 하늘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	11/14	보성	비온뒤	10/15
목포	비온뒤	11/15	순천	비온뒤	11/16
여수	비온뒤	13/15	영광	비온뒤	10/14
완도	비온뒤	12/16	진도	비온뒤	11/16
구례	비온뒤	9/15	군산	비온뒤	10/13
해남	비온뒤	11/17	남원	비온뒤	8/13
장성	비온뒤	9/13	축산도	비온뒤	12/14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먼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5~3.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동~동	1.0~2.0	북~북동	1.0~2.0
서부	먼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낮음
- 체감온도: 관심

◇돌매

목포	밀물	썰물
	11:49	04:46
	00:00	17:17
여수	밀물	썰물
	06:51	00:27
	19:10	12:51

◇주간 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10/14	7/9	3/5	1/6	1/7	4/8	3/8



"세계 항공사 유니폼 맵시 어때요" '제9회 항공 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한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지난 20일 오후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세계 각국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패션쇼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온 뒤 기온 뚝...26일 첫 눈 온다

오는 26일 광주·전남지역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내리는 비와 함께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광주·전남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 밤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26~27일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기상청은 25일부터 27일 사이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6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5도로 예상되며, 목포는 4~5도, 여수는 5~6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마트, 노조 탄압 논란

목포·순천점 10월 지부 설립...한달새 8명 탈퇴 통보 민노총 "관리자들이 탈퇴 회유·협박"...오늘 기자회견

민노총 전남지역본부(이하 민노총)는 "신세계 이마트 측이 최근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마트 목포점과 순천점에서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조탈퇴를 강요, 협박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 순천점과 목포점은 각각

지난달 6일과 11일 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 노동조합 순천지부와 목포지부를 설립했다. 순천점과 목포점의 전체 직원은 각각 200여명으로 이중 30여명과 20여명이 노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점에서는 관리자들이 '노조와 관련된 평가 후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협박과 폭언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고, 순천점에서는 '노조설립을 주도해온 조합원들에게 노조 설립을 연기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민노총과 신세계 이마트 노조의 주장이다.

민노총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순천과 목포에서 열 계획이다.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사원들이 노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민노총이 주장하는 노조 탈퇴 종용과 협박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서울대 총학회장엔 '성소수자'

'커밍아웃'(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정체성 공개)한 성소수자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22일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치러진 제5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디테일' 선거운동본부의 정후보 김보미(여·23·소비자 아동 12학년)씨와 부후보 김민석(19·정치외교 14)씨가 당선됐다.

김씨는 출마 당시 "서울대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저는 레즈비언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리 무혐의' 전남대병원교수 직위해제 부당

광주지법 "사적 사용 없었다"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의료기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18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검찰은 A교수의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직무 관련성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럼에도 전남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징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교수에게 내린 직위해제와 징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교수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의국비 25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www.7ryang.com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정윤석

강진칠량봉황옹기

우리고장의 자랑!!

칠량봉황옹기는 소박하지만 풍만한 선! 자연과 같은 따뜻한 색깔! 간결하면서 세련된 옹기입니다

남도의 유서깊은 강진에서 옹기를 빚는 정윤석씨 정명(47) 부자

A 2말 40kg 40L, B 1말 20kg 20L, C 1.5말 15kg 15L, D 3말 60kg 60L, E 2말 40kg 40L, F 1말 20kg 20L, G 0.5말 10kg 10L

강진칠량봉황옹기 주문문의 061-433-4943, 010-8836-2665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로179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남	여
의사, 변호사, 박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립, 향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재혼

남	여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6~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빌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